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23】

부활을 꿈꾸며 쓰러지다

▲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의 권애라가 태어났던 마을. 가운데 보이는 것이 옛터에 지은 집이다.

그리고 평생 불고가산을 한 것이 김시현만은 아니었다. 가령, 어느날 갑자기 권애라는 그 며느리 최난주崔蘭珠에게 금붙이 등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패물을 내놓으라 하였다. 최난주는 이른바 경주 최부자의 손녀이기 때문에 시집올 때 갖출만한 패물은 가지고 온 터였다. 며느리 최난주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을 법으로 알기 때문에 패물을 내놓으라면 용처를 묻지 못하고 내놓았다. 그렇게 며느리의 혼수 패물을 가지고 나간 권애라는 저녁때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거나 누구를 갖다 주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식이었다.

권애라는 1967년 6월 8일의 국회의원 총선에 작고한 남편 김시현의 고향이자 옛 지역구인 안동安東에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그 나이는 71세, 만으로 70세였다. 남자로서도 70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드문데 여자가 70이 넘어 출마했으니 여간 희한한 일이 아니었다. 신문 등에는 ‘ 너도 나도 속에 낀 당년 70세, 성별 여자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주간지週刊紙 등에는 중간제목으로 ‘ 6·8선거에 안동에서 출마한 권애라 할머니, 권난봉·권박연폭포란 별명, 고 김시현옹과 모스크바에서 결혼하고, 김옹의 국회의원 출마 때마다 연설해주고 이번엔 유언 따라 ’ 등등으로 흥미를 부추기는 과장기사가 나가는데 또 거기에‘ 여자 때문에 남자들이 죄지으니 검소하게 살며 정신 바짝 차리자 ’는 캐치프레이즈가 특필되는가 하면‘ 공화당共和黨서 낙천한 안동권씨문중서 안동김씨 표깨러 내세웠다는 설도 ’라 하는 루머까지도 보기 부제로 뽑아 퍼뜨리는 식이었다.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해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도 권애라는 검정색 의바지 차림에 팔목까지 닿는 검은 나일론 셔츠형 저고리 차림이었다. 그리고 신고 다니는 것은 사철 검정 고무신이었다.

그 허술한 차림의 노파가 누구의 눈에도 국회의원 입후보자로는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게 권애라로서는 평소 차림인데 서울에서 그런 모습으로 당시 흔하던 ‘ 다방 ’에 들어서면 ‘ 레지 ’가 검을 팔러 다니는 잡상노파로 알고 ‘ 할머니 여긴 들어오지 말라 ’며 막았다. 그러면 권애라는 ‘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왜 못들어가느냐 ’고 나무랐고, 과연 권애라가 정계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거침없이 수인사하며 마주앉는 것을 보고는 레지와 ‘ 마담 ’이 와 사죄하며 재차 훈계를 듣고 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애라가 그 남루한 노파의 외모와 달리 일단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면 그 입에서 청산유수와 노도같은 열변이 쏟아져나와 금세 청중을 사로잡아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 웅변과 변설의 솜씨를 당세에 당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1967년 당시의 정치풍토는 공명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분위기는 집권 공화당 후보에게 어떻게든 유리해야 하고 당선도 안될 테면서 집권당후보의 표를 앗아가는 객꾼 후보의 존재는 용납되기 어려웠다. 어디에서나 선거는 집권당 공화당과 야당 신민당新民黨의 대결이었다. 안동에서는 전에 공화당 의원이던 권오훈權五勳이 공천에서 져 영주榮州 출신의 김대진金大鎭이 공화당 공천으로 나오자 권오훈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 맞섰다. 양자의 대결로 여당표가 갈리자 박해충朴海充이 신민당 공천으로 나와 어부지리를 보며 3자구도를 이루었다. 결국 뜻밖의 결과로 박해충이 당선되지만 이러한 구도에 권애라가 뛰어들어 때아닌 바람을 일으키니 일이 여간 복잡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한 주간신문에 기자와의 인터뷰로 나간 권애라 후보에 관한 화제기사 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권여사의 눈 언저리에 물기가 돌았다.

“ 할아버지(김시현)와 아들(김봉년)과 저와 세 식구가 함께 오붓하게 지내보기는 4·19이후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무소속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부터 5·16으로 물러앉은 이래 작년 정월 돌아가실 때까지 6,7년간 뿐이었습니다. ”

그러고 보니 고 김시현옹이 이승만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언도된 무기징역에서 풀려나온 것은 4·19직후였었다. 앞에 앉은 아들 김봉년(43세)씨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님이 망령이 들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아버님이 운명하실 때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꼭 한마디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

——예.

“ 그것이‘ 권동지, 내가 할 일을 못다하고 죽네 ’ 였습니다. 아버님이 두번이나 국회의원에 뽑혔지만 그 선거연설은 모두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시니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 괴롭습니다. ”

열여덟살에 북경北京에서 아버지가 주는 권총과 장총을 메고 항일연합군抗日聯合軍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에 투신했다는 아들은 지금 인천중공업仁川重工業의 말단 직원이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한 달에 많이 가지고 오면 6천원, 적으면 5천원의 월급쟁이이다. 김봉년씨도 역시 해방전 만주 장춘長春에서 형무소 살이를 하다가 해방과 함께 풀려나왔다. 이때 모자母子를 잡아넣은 사람이 일본 관동군헌병關東軍憲兵 특무조장特務曹長 김창룡金昌龍.

권할머니는 항상 바지같은‘ 몸뻬 ’를 입는다. 치마는 사치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몸뻬 때문에 손님을 찾아 다방에 들어가다가 콩나물장수로 오인되어 쫓겨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럴 때면 으레 철없는 ‘ 레지 ’아가씨들에게 설교를 한다.

“ 우리나라 여성은 너무나 순진해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되도록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이어반지니 금반지가 다 무업니까. 눈꺼풀 밑에 화살같이 솟아나온 그런 화장기구가 다 무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때인가요? ”

권할머니는 이렇게 묻는 것이다.

안동은 안동김씨安東金氏와 안동권씨安東權氏가 표를 좌우하는 곳.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두 성이 아닌 사람은 해방이후‘ 민주당이면 막대기라도 당선된다 ’던 선거전에서 과거 민주당의 박해충朴海充씨 한 사람뿐. 그 이외는 모두 김·권씨.

이곳의 6·8선거구 예상자는 현재 김대진金大鎭씨(공화·안동김씨·영주 출신)·박해충朴海充씨(신민당)·정광익씨(대중당大衆黨), 그리고 권할머니와 또 한 사람으로 모두 6명. 씨족간의 표쟁탈전이 전개될 것같다.

안동의 유권자수는 약 12만명.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공화당이 5만4천, 신민당이 3만, 할머니의 한독당이 4천5백표를 얻은 곳.

이 안동구의 표밭을 더 풀이해보면 씨족싸움으로 얽혀 있다. 권할머니는 2대와 5대의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시현옹의 소산김씨素山金氏 문중의 선거기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의 공천싸움에서 탈락된 권오훈씨계 권씨일문이 뒤에서 권할머니를 밀어 내세웠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서 고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은 공화당 공천자인 김대진씨. 권씨일문의 반발표 흡수에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김씨표와 권씨표 쟁탈전에 뛰어든 것이 신민당의 박해충씨. 신민당은 엉뚱히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세평이고 보면 선거는 이 3자 가운데서 유동표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쪽이 이기리라는 소리.

아무튼 권여사의 입후보에는 뒷공론도 많아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는 유림儒林측의 반발은 고사하고 권여사가 안동김씨네와 대결하기 위해 나왔다는 말, 혹은 공화당 공천 반발파가 ‘ 안동에도 사람 있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안동김씨이면서도 영주 사람인 김대진씨의 표를 깎기 위해 권여사를 업었다는 말 등등이 나돌고 있다.

여기에서 벼라별 설이 나돌았지만 권애라가 출마한 것은 어느 쪽의 사주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염원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런 꼬임에 넘어가 정상배政商輩와 같이 뒷돈을 받아 챙길 인물도 아니었다. 이때에 만약 권애라가 지기知己와 같았던 김도연이 죽지 않고 야당의 당수급으로 있어 신민당의 공천이라도 시켜주었더라면 권애라의 위상은 달라지고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권애라가 일찍 정계에 나갔더라면 박순천朴順天을 능가하거나 그에 필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권애라는 남편을 제치고 나대거나 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만큼 부도婦道를 지키는 보수여성이었다. 게다가 권애라의 생리에는 가망이 있건 없건 신민당보다 한독당에 애착이 갔을지도 모른다. 사실 한독당은 임시정부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당의 형해였다.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은 1930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이시영李始榮·김구金九·안창호安昌浩·조소앙趙素昂 등이 1928년에 처음 조직했다가 만주에서 내려온 이청천李靑天·여준呂準 등의 한국독립당 및 이탁李 ·현익철玄益哲 등의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을 맞아 한국독립당을 재결성하였다. 삼균주의三均主義, 즉복국復國과 구족救族·구세救世를 표방하면서 김구의 영도 아래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1932년 1월에 이봉창李奉昌을 일본에 보내 일본 천황을 저격케 하고 같은 해 4월 상해에서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성공시키고 5월에는 대련大連에서 최흥식崔興植·유상근兪相根 등이 관동군상령관을 저격하는 사건 등을 일으키게 했다. 그밖에 이청천·조경한趙擎韓 등이 만주에서 벌인 무장투쟁이 다 동당의 업적이었다. 1938년에는 중경重慶에서 광복군光復軍을 조직해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삼고 상해·남경南京·광동廣東 등지로 본부를 옮겨가며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이러한 한독당이 해방후 귀국해서는 이승만 등에게 의도적으로 배척되고 김구도 암살되어 구심점을 잃으면서 국민의회國民議會와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 등에 흡수되어 들어가 그 존재가 거의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한독당에 권애라는 홀로 남다른 애착과 향수를 가지고 있어 그 이름으로 기꺼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옛 시절의 독립정신을 되살려 불어넣는 열변을 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 김봉년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두 차례 출마해 당선될 때 유세 연설은 사실 어머니가 했다고 실토하였듯이 대중을 사로잡는 그 웅변술은 타고난 바였다. 낡고 값싼 의바지 차림에 평생 화장이란 것을 모르고 살며 늙은 얼굴, 그리고 쪽진 머리의 노파에게서 나오는, 독립과 애국애족으로 피맺힌 웅변술은 마력에 씌인듯 가는 곳마다에서 다중을 사로잡아 압도했다. 이에 가장 위협을 느껴 그냥 둘 수 없게 된 것은 힘있는 여당 후보측이었다. 어느날 저녁 권애라는 유세를 마치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호젓한 곳에서 보쌈을 당했다. 이 나이 든 노인 과부를 보쌈하는 데는 별로 힘이 들 것도 없었다. 검은 푸대자루를 뒤집어 씌워 담아 가지고는 지프차에 태워 어디론지 데려갔다. 그렇게 얼마를 달려간 다음에 차에서 들려 내리고 다시 어디로 옮겨져 자루에서 풀려나 눈을 들어보니 근사한 호텔방이었다. 그 방에 감금되어 권애라는 6월 8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풀려났다. 그랬는데도 선거결과 권애라는 상당한 득표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 때문에 한두 후보는 영향을 받아 선두가 뒤바뀌게 되었다.

<權五焄>